

4/13~5/26

특별전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특별전

셋슈 전설 ‘화성’의 탄생

셋슈(1420-1506?)는 일본미술사상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작품이 6점이나 있다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현재 셋슈에 관한 평가는 특별히 두드러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품이 뛰어난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셋슈와 그의 작품에 대해 오랫동안 평가가 이루어져 왔고 그 축적된 평가 위에 오늘날의 높은 평가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로 일본 근세에 셋슈가 수용되는 양상을 따라가 보면서 ‘화성’ 즉 그림의 성인이라 불리는 셋슈를 향한 평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모모야마시대(1573-1615)에 셋슈의 후계자를 자칭한 운코쿠파와 하세가와파, 셋슈의 화풍을 자신들의 유파 양식의 초석으로 삼은 에도시대(1615-1868) 가노파, 나아가 이러한 중국 회화 계통의 화가들과는 다른 다양한 화가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많은 이들이 셋슈를 따르고 그 작품을 배우면서 새로운 회화 세계를 열어 갔습니다.

셋슈가 수용되는 양상은 그 자체로 복잡한 성질을 갖고 있어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양한 셋슈 수용 양상을 통해 ‘화성’ 셋슈의 탄생 과정을 밝히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입니다.



중요문화재 사계절 꽃과 새 그림 병풍(오른쪽 병풍)
셋슈 작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후지산과 미호, 세이렌지 절 셋슈 작으로 전함, 침중화 찬
도쿄 에이세이문고 소장

6/18~8/4

특집전시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1F-2~4

도요토미 히데쓰구 430 주기 특집전시

도요토미 히데쓰구와 즈이센지 절

도요토미 히데쓰구(1568-1595)는 아즈치모모야마시대의 무장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로 태어나 천황을 보좌하는 직책인 관백에까지 오르지만, 점점 히데요시와 사이가 멀어지고 끝내 자결을 명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부인과 자식에게도 미쳐 히데쓰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모두 교토 산조가와라에서 처형됩니다. 즈이센지는 히데쓰구 일족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그 처형지 터에 세워진 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쓰구 430주기를 맞아 즈이센지 절이 소장하고 있는 히데쓰구 일족에 관한 작품을 중심으로 즈이센지 절의 보물을 소개합니다.



대나무 매화 학 두 마리
이토 자쿠추 작
도쿄 이데미쓰미술관 소장
(전시: 4/30 ~ 5/26)



히데쓰구공 연기 두루마리 그림(부분)
교토 즈이센지 절 소장



중요문화재
하나다이토오도시 도마루 갑옷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6/18~8/4

특별공개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1F-5

수리 완료 기념 특별공개

중요문화재 하나다이토오도시 도마루 갑옷

<하나다이토오도시 도마루 갑옷(투구·소매 있음. 깃발 부속)>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편찬한 고미술 도록《슈코진슈》에도 수록된 명품으로 무장 나스노 요이치로 유명한 나스 가문에 전해 내려왔습니다. ‘하나다이토오도시’는 청색 실로 가죽과 미늘을 엮었다는 뜻이며 ‘도마루’는 몸통을 둥글게 감싸 오른쪽 옆구리에서 고정하는 식의 보병용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과 투구는 금속 부품뿐만 아니라 실과 천 조각, 가죽, 옷털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서 만드는 종합 예술입니다. 튼튼한 재료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도마루’ 갑옷 또한 손상이 심했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Bank of America 조성을 받아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수리 완료를 기념해 특별 공개합니다.

10/8~12/1

특별전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특별전

호넨과 극락정토

정토종의 시조 호넨(호넨보 겐쿠, 1133-1212)은 헤이안시대 말부터 가마쿠라시대 초의 어지러운 시기에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누구나 똑같이 아미타여래 부처의 구제를 받고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고 설파하여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레이와 6년(2024)은 정토종이 열린 지 8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호넨의 개종을 시작으로 제자들의 여러 유파 창설과 교의 확립, 도쿠가와 쇼군 가문이 귀의하면서 큰 발전을 거두기까지의 정토종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국보와 중요문화재를 포함한 귀중한 보물들을 통해 정토종의 역사와 만나보십시오.



국보
호넨상인 전기 두루마리 그림 제6권(부분)
교토 지온인 절 소장 (전시: 10/8 - 10/20)



중요문화재
아미타여래 부처 입상
정토종 소장 (전시: 10/8 ~ 11/4)

8/7~9/8

특집전시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1F-2~3

우에다 컬렉션 소장 기념 특집전시

밀교 도상의 미

전후, 의료업에 종사하는 한편 밀교 도상을 수집하는 데 힘을 써 개인 수집가로는 일본 최대급 컬렉션을 갖추었던 고 우에다 오사무 씨. 그 귀중한 컬렉션의 반 이상이 유족들에 의해 교토국립박물관에 양도, 기증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오랫동안 공개할 기회가 없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우에다 컬렉션은 대부분이 헤이안시대(794-1185)부터 가마쿠라시대(1185-1333)의 작품이며 전래가 분명하여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술적 가치도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밀교 도상의 매력과 새롭게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비심다라니 및 사십이수 도상(부분)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1/2~2/2

특집전시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1F-2

새해맞이 특집전시

뱀 세상 -을사년 뱀의 해를 축하하며-

심간십이지를 테마로 하는 새해맞이 연례 특집 전시입니다. 2025에는 뱀의 해를 맞아 미술 속 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꽃사자 뱀 무늬 금화포 조각(부분)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2/15~3/23

특집전시

— 장소 —
헤이세이 지신관
1F-2

특집전시

히나마쓰리와 인형

교토국립박물관 연례 전시입니다. 관서 지방에서 유행한 화려한 궁전 장식 인형인 ‘고텐카자리비나’를 중심으로 각종 ‘히나’ 인형과 다양한 교토 인형을 소개합니다.



교호비나 인형(오우치비나 인형)
교토국립박물관 소장